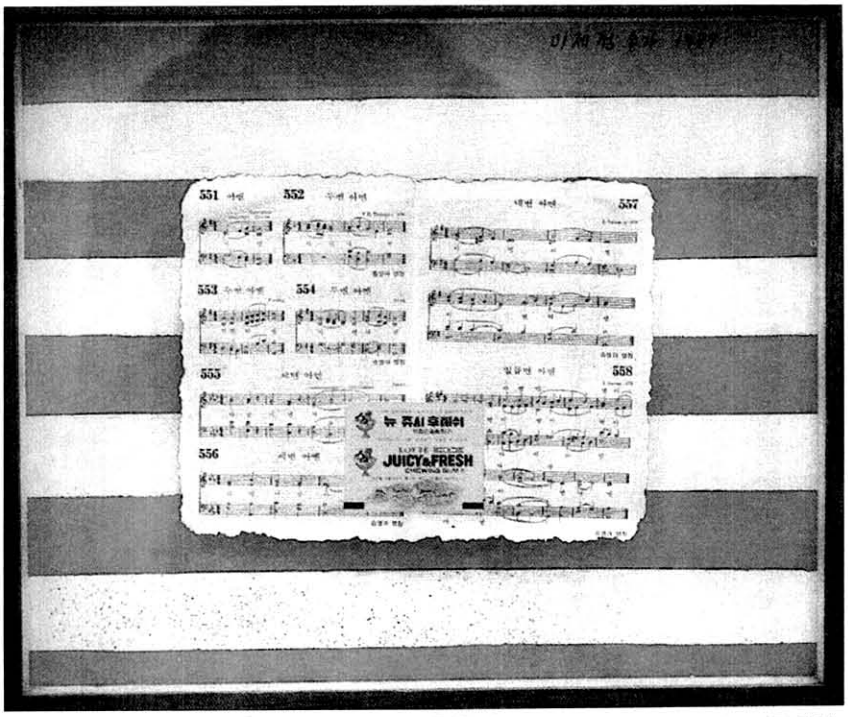
양아치 근성, 예술로 폭발하다



「미제 껌 송가」, 혼합재료, 41×33cm, 1987, 주재환

1979년 창립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이하 현발)' 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성과보다도 다른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발' 은 겉으로는 미술인 집단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술사, 이론, 평론, 소설, 사진, 출판, 미술 등 다양한 전공자들의 모임이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고졸자, 대학 중퇴자, 자수성가자 등 학력도 그야말로 들쭉날쭉 하였다.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과는 전혀 무관하였고, 가히 인간시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거기에다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외모들 또한 가관이었고(나의 경우 북미 인디언 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는 모습이나 성격 등도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현발' 모임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하도 자주 모이고 늦게까지 어울려, 주변에서 호모집단이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나 행동 때문에 웃다가 정말 배꼽이 빠질 뻔하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건강했고 자신만만했다.

김정헌은 '현발' 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길 좋아했다. 개과와 고양이과로 말이다. 개과에 속하는 인물은 성완경, 김용태, 신경호, 이태호, 김진수, 최민, 김정헌, 임옥상, 이청운 등이었고, 고양이과에 속하는 인물은 민정기, 강요배, 오윤, 윤범모, 노원희, 박재동, 안규철, 박불똥, 안창홍, 정동석 등이었다. 그러나 그 두 집단 어느 한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절묘한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주재환이다. 어쩔 때는 개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둘 중 어느 과도 아니다.

개과 인물들은 왁왁대며 앞으로 잘 나서지만 뒤끝이 약하고, 고양이과 인물들은 조용하고 심사숙고하는 편이지만 용기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면, 언제나 앞줄에 서는 사람, 뒤로 엉덩이를 빼는 사람, 옆으로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 늘 종횡무진 앞뒤 좌우를 부산히 오고 가는 사람 등 천차만별이지만 항상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늘 현장에 있는 사람, 공기 같은 사람,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는 것 같아도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주재환이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현실과 발언' 도 '민족미술협의회' 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자리를 지키고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외유내강의 전형이다. 「이 유쾌한 씨를 보라」라는 전시와 책 출간으로 이젠 작가로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의 초창기 작업을 잘 모를 것이다.

1987년 '현발' 은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반미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던 때였다. 주재환이 가져 온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거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성조기, 성경, 그리고 껌(그것도 씹다만!). 미국을 그 이상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깨가 삼각형으로 축 늘어진 그는 예의 낄낄거리는 웃음을 보이며 "별거 아니야, 그냥 가져왔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작품처럼 충격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붉은 뒷배경의 횡선과 역시 나란히 함께 반복되는 악보와 이 악보를 따라 흐르는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단물만 빨아먹고 남은 껌으로 이를 간단없이 뭉갰다. 그의 양아치 근성이 발동하고 만 것이다.

이 비정규적이고 비전문적인 표현 수단은 바로 그가 어떻게 '현장' 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증명해 준다. 즉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능한 것을 그 자체로 활용한다. 예술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그것이 미술이면 어떻고, 또 미술이 아니면 어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싱싱하고 풋풋한 시도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음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끽끽대며 남에게 노래를 시키고는 그것을 들으며 즐기길 좋아하지만 마지못해 부르게 된다면 단 두 가지 단골 메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키 좆만 좆이냐 내 좆도 좆이다' 이다. 또 하나는 '여보나 당신아 시계를 사줄까' 로 시작한다.

www.oksanglim.com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광주교육대학 교수 (1979-81)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981-92)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1986)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1993-94)
저서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